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음성지원

[입당송] 요한 12,1,12-13; 시편 24(23),9-10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는 소리, * “높은 데서 호산내! 당신의 크신 자비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다. * “높은 데서 호산내! 당신의 크신 자비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제1독서] 이사 50,4-7

[화답송] 시편 22(21),8-9,17-18,19-20,23-24(27)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쭈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으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2독서] 필리 2,6-11

[복음 환호송]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마태 26,14-27,66(또는 27,11-54)

[영성체송] 마태 26,42 참조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주간’

‘성주간’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성토요일’까지의 한 주간을 말합니다.

성주간의 첫날인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 교회는 미사 전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환영한다는 뜻으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성주간 목요일 오전에는 주교좌성당에 사제들이 모두 모여 교구장 주교의 주례로 ‘성유 축성 미사’를 봉헌합니다. ‘재의 수요일’에 시작한 사순 시기는 이날 저녁 봉헌하는 ‘주님 만찬 미사’ 직전에 끝납니다.

‘주님 만찬 미사’가 끝나면 성체를 수난 감실로 옮기고 제대포를 벗깁니다. 신자들은 수난 감실에 모신 성체 앞에서 조배하며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합니다.



고통과 나

글 | 권일수 요셉 신부(양근 성지 전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이웃과 화해하지 못한 채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통과 괴로움의 긴 밤을 보내며 자신의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는 ‘성지 주일’입니다. 성지 주일 수난 복음에서 듣는 예수님의 수난 역사는 바로 우리들 인생의 역사이며, 수난 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우리 인생의 역사 안에서 만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백성들의 원로와 대사제들은 자신의 자리를 잃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법정에서 세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나 자기의 체면이 깎일 위기의 상황에서는 신자라는 것을 망각한 채 행동하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법정에서 넘긴 백성의 원로들과 대사제들의 모습이며, 또한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울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는 군중들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채워주리라고 기대하다, 자기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성당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을 원망하고 성당에 나오지 않으니 말입

니다. 한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던 베로니카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키레네 사람,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루살렘의 부인들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베로니카나 키레네 사람처럼, 아프고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애처로워 울고 있는 예루살렘 부인들처럼 나의 무력함을 절감하며 아무 말도 못 하고 그저 울기만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법정에서 넘긴 백성들의 원로나 대사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처럼 살기도 하고, 한편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아파하며 우는 예루살렘 부인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키레네 사람처럼 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수난 복음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마음이 변하는 우리 모습이자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한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것은 비록 내가 진 십자가가 힘에 부치고 버겁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의 십자가를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죽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을 때 우리는 평화와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되고, 무엇보다도 고통과 기쁨이 교차 되는 우리 인생의 수난사를 사랑으로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욕을 먹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온라인 대전 게임 문화 안에는 독특한 풍경이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게임 채팅창에서는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분풀이로 온갖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낮 뜨겁고 저속한 말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승리의 기쁨도 한순간에 식어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비방과 욕설을 ‘극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표현이 거칠면 거칠수록 나의 실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반증이라는, 역설적인 말이지요.

한국의 순교자들을 알아가다 보면 ‘치명일기’나 ‘병인 치명사적’ 같은 교회 측 문헌뿐 아니라, 박해자들의 시선으로 쓰인 관변 기록도 마주하게 됩니다. ‘포도청등록’이나 ‘조선왕조실록’ 등 국가기록에 남은 체포와 신문 기록은 순교자들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사료이면서, 당시 사회가 천주교와 교우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보여주는 창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록 속 표현들은 한결같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학의 무리’, ‘요망한 도’를 따르는 ‘악당’과 같은 낙인은 시복·시성 조사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지를 드러내는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1866년 병인박해 때 수원에서 순교한 권중심은 충청도 내포 지방 신창 창말(현 충남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박해가 일어나기 몇 해 전에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박해가 시작되어 신창 지역에 파견된 포교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신자를 체포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권중심은 자신도 천주교 신자라며 자수하였고 압송되기 전 아내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살다가, 만일 체포되거나 부디 배교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순교하여 영원한 천당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그는 말합니다. “그렇게 울지 마세요. 이는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대사(大事)를 그리치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포교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제법이다.”

내포 지방을 순례하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마주합니다. 박해 시대의 신앙 선조들은 보통 깊은 산속 교우촌으로 숨어들기 마련이었을 텐데, 그와 반대로 이 지역에는 너른 평야가 펼쳐져 있고 숨을 곳 없어 보이는 곳에 교우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수의 모습으로 병사들에게 옷 벗김을 당하신 그분처럼, 사방에서 몰려드는 폭력과 죽음 앞에 발가벗겨진 채 홀연히 서 계신 주님의 모습처럼, 내포 지방의 교우촌은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삶의 자리에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앞에서도 숨지 않고, ‘사학의 무리’라는 낙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 때문에 미움받을까 두려워 숨어들기보다, 주님께서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의연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욕을 ‘극찬’으로 돌려 말하는 세상의 기술이 아니라, 미움 속에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 복음의 용기를 청합니다.

하느님의 종 권중심
저희가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미움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양근 성지

- ① 한국 천주교 확산의 요람
- ② 순교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뿌리

| 글·사진 |
이선규 대건 안드레아

‘성지순례하는 남자’의 수원교구 성지순례
‘양근 성지’편 지금 확인하세요!



세례를 받게 되면서, 전라도와 충청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전파된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하였던 가톨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양근 성지는 한국 천주교 초기 역사와 순교신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성지입니다. 특히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생적 신앙 전통을 잘 보여주는 곳으로, 천진암에서 한국천주교가 잉태되었다면 양근 성지는 한국천주교의 교리 형성과 확산에 중요한 출발점으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큼니다. 한국 가톨릭의 뿌리와 그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양근 성지가 있는 양평 일대는 조선 후기 당대의 학자였으며 천주교 교리를 연구하였던 권철신 암브로시오,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형제의 고향이자, 천진암의 강학회를 통해 깨우친 신앙으로 이들 형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분들은 제자들과 함께 천주교 서적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통해 신앙을 더욱 깊게 탐구하고 전파한 지식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두 분의 제자이기도 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 한국 가톨릭의 기초 형성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권철신의 제자 중 특히 전라도 출신의 유헌겸 아우구스티노와 내포의 사도 이준창 루도비코는 이승훈 베드로에게

이처럼 초기 가톨릭 형성에 크게 기여했던 권철신·권일신 형제는 이후 1801년 신유박해때 체포되어, 권철신은 옥중에서 병을 얻어 순교하였고 권일신 역시 혹독한 형벌을 받으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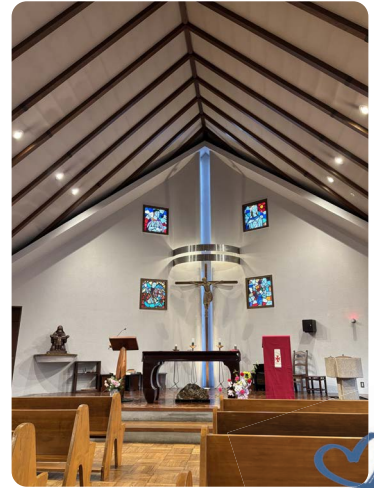
**하늘과 땅에 천신과 사람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천주를 섬기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무엇을 준다 하여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고 주님께 대한 제 의무를 꺾하기 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신앙고백)

죽음 앞에서도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위해 순교한 권일신의 신앙고백은 순교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용기,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권철신, 권일신은 1984년 한국 천주교회 103위 시성식 때에 함께 시성 되었고, 두 분의 거룩한 삶과 숭고한 신앙은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요의
프랑스
스프링
빛



지난 1월 중순, 암 투병 끝에 어머니가 선종하시자 저는 상실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왜'라는 질문에 갈혀 하
느님을 참 많이도 원망했습니다. 그 무렵, 세계청년대회(WYD) 홍보와 현지 청년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일본
사이타마 교구에 방문할 청년들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집에서 잠
시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에 덜컥 지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보다 여러 걱정이 앞섰습니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여정에서 제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데 소통이
가능할지, 또 현지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걱정들이 얼
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글을 써 내려가며 새삼 깨닫습니다.

일본에서의 매 순간이 소중한 귀한 경험이었지만, 주일 미사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가
와고에 성당은 일본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독서와 성가가 베트남어와 일본어로 들려
왔습니다.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미사 내내 눈물을 꼭 참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
다. 불과 세 달 전까지만 해도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통에 몸부림치시던 어머니의 곁을 지켜온 제가, 그 자
리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였을까요. 언어도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
루고 있는, 그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지나온 고통의 모든 갈
피마다, 그리고 기적처럼 마주한 이 모든 순간들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 아닐까요?

제 마음에 오랜 여운을 남긴 것은, 현지 할아버지의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일 겁니다. 할아버지는 작고 누추
한 집이라면서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주인을 닮아 아담하고 소박하면서도, 정결함과 따뜻함이 배어 있
는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세 명의 청년은 식탁에 둘러앉아 번역기에 의존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기 사용이 미숙한 탓에 서로 버벅대기도 하고 실수도 잦았지만, 할아버지의 친절함과 따뜻함 덕
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집을 나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토록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했을까. 이 친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사랑을 몸소 살아내고 계시는 그분의
얼굴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눈이 가리워져 있던 저를 주님께서 사이타마로 이끄신 이유를 저는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합니
다. 하지만 성령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머무는 내내 제 마음을 건드리고 계셨음을 느낍니다.
어쩌면 상처로 잔뜩 움츠리고 있던 저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내시고, 꽁꽁 닫혀 있던 제 마음의 문에 작
은 틈을 만드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틈으로도 빛이 스며들어 어둠을 몰아내듯, 그렇게 저를 당
신의 빛으로 위로하시려는 그분의 선한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 글을 마무리하며 어렵פות이 깨닫습니다.

사제 수품
50주년 금경축 / 25주년 은경축

지난 세월 수원교구의 발전과 신자들의 성화를 위해 애쓰신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육간에 건강하시도록 신자 여러분의 정성 어린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제 수품 50주년 금경축



황규철(비오) 신부

사제수품 1976.12.8
조원동 주교좌성당
사목기간 1976.12.17
~ 2010.8.30
성사전담 2010.8.31 ~



김학렬(요한 사도) 신부

사제수품 1976.12.8
조원동 주교좌성당
사목기간 1976.12.17
~ 2016.6.20
성사전담 2016.6.21 ~



송병수(시몬) 신부

사제수품 1976.12.8
조원동 주교좌성당
사목기간 1976.12.17
~ 2018.6.25
성사전담 2018.6.26 ~



송현석(마르코) 신부

사제수품 1976.12.8
조원동 주교좌성당
사목기간 1976.12.17
~ 2017.6.12
성사전담 2017.6.13 ~

사제 수품 25주년 은경축

(수품일 2001.1.19)



김정곤(토마스) 신부
프라도 사제회 연수



이정훈(이레네오) 신부
수원순교가르멜봉쇄
여자수도원 성사담당



박한현(요셉) 신부
대천동 본당 주임



이종덕(가밀로) 신부
관악 본당 주임



한기석(마카리오) 신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지성모의집) 성사담당



김종남(요셉) 신부
신흥동 본당 주임



김민호(요셉) 신부
금정 본당 주임



이철구(요셉) 신부
교구 홍보국장



김태규(방그라시오) 신부
수지 본당 주임



홍요셉(요셉) 신부
포일 본당 주임



안준성(마티아) 신부
교구 성소국장



박경민(베네딕토) 신부
별양동 본당 주임



한영기(바오로) 신부
분당성요한 본당 주임



유승우(요셉) 신부
교구 사회복음화국장



유주성(블라시오) 신부
성 라자로 마을 원장



박두선(바오로) 신부
분당야탑동 본당 주임



김선복(베드로) 신부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 성사담당



안상일(요셉) 신부
용호 본당 주임

성유 축성 미사

일시 4.2(목) 10:30
장소 정자동 주교좌성당

특별 헌금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는 「사랑의 헌금」이,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예루살렘성지 복구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으니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기억할 사제



박지환(요한) 신부
1985년 3월 29일 선종



유진선(레오) 신부
2018년 3월 31일 선종

교구 알림

2026년 사순 시기 모금

일시 2026년 사순 시기
방법 사순저금통
계좌이체(신협 131-018-742128
생명위원회)
ARS(060-702-0200)
사용 전액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문의 031-268-3907 사회복음화국

새만금 생태탐방

일시 4.18(토) 08:00. 수원교구청 출발
장소 새만금 수라갯벌
내용 새만금 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생태탐방
비용 3만 원
마감 4.8(수) 온라인 신청
신청 ecosuwon.casuwon.or.kr
문의 031-465-8311
사회복음화국 생태환경위원회

요당리 성지 WYD 십자가·성화 방문

일시 4.7(화) 11:00
내용 WYD(세계청년대회) 십자가와
성화 모시고 미사 봉헌
문의 031-353-9725 요당리 성지

생태영성 연피정

일정 5.23~24(1박 2일)
장소 라베르나 기도의 집
주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지도 진이나시오 수녀
(라우다또시 생태공동체)
비용 13만 원
마감 5.13(수)
인원 선착순 30명
신청 ecosuwon.casuwon.or.kr
문의 031-465-8311
사회복음화국 생태환경위원회

죽산 성지·어능 성지 순례

일시 5.22(금) 08:00~19:00
출발 수원화성순교 성지
인원 선착순 80명
회비 4만 원(점심, 간식 포함)
참고 1일 여행자보험 개별 가입
실비보험 가입자 제외
주관 수원화성순교 성지
마감 5월 첫째 주
문의 031-246-8845 수원화성순교 성지

청년성령쇄신봉사회 젊은이 기도모임 <열린찬양 미사 및 기도회>

열린찬양 미사
일시 4.18(토) 16:00~18:00
열린화요 기도회
일시 매주 화요일(공휴일 제외)
20:00~22:00
장소 제2대리구청(경기 의왕시 원골로 56)
기타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음카페
'수원교구 젊은이 기도모임' 검색
문의 031-360-7636
제2대리구 청소년3국

2026 청장년 신앙 아카데미 "바라봄"

일시 4.26~5.31 매주일 14:00~18:00
장소 제2대리구청(의왕시 오전동)
대상 30~45세 청장년(기혼자 포함)
비용 5만 원
신청 3.16(월)~4.13(월)
참고 v2.casuwon.or.kr '교육행사'
문의 031-360-7636 제2대리구 청소년3국

인준 단체 알림

미사·피정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식별&선택)

일정 8일-4.10~19, 5.1~10
3박 4일-4.2~5, 5.22~25
1일-5.17(주일)
문의 031-254-8950 예수회 말씀의 집

미리내 성지 성체조배 피정

일정 4.8(수)~10(금) 2박 3일
장소 미리내 묵상의 집
주제 말씀 선포로 육화되는
부활의 기쁨
문의 010-2369-9290
미리내 묵상의 집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영성피정

일시 4.9(목) 13:00~16:3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
대상 모든 신자
강의 한철호 신부(미사)
문의 010-9424-2701
수원교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가톨릭전례꽃꽂이 연구회

3월 월례미사 및 교육

일시 3.30(월) 10:3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
 참고 cafe.naver.com/floralliturgy
 문의 010-6278-2488
 수원교구 가톨릭전례꽃꽂이 연구회

성경 치유 대피정

일시 4.13(월) 10:00~17:00(점심무료제공)
 강사 송봉모 신부(강의, 미사, 안수)
 한영임 회장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인천교구
 지혜의 샘(중동역 5분거리)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지혜의 샘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날짜 5.14(목)~17(주일)
 장소 성 베네딕도 문화여성센터
 (왜관 수도원 내)
 비용 42만 원(1인 1실)
 지도 허성준 신부 외
 문의 010-4731-2468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령강림 치유 대피정

수원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일시 5.23(토) 09:00~17:30
 장소 분당성요한 성당
 주제 주님께서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강사 김재덕 신부, 박현민 신부
 이창진 신부
 미사 문희종 주교와 사제단
 준비 미사도구, 묵주, 점심 각자 준비
 대상 누구나
 문의 031-251-4400
 수원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피정)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불안정한 우리

일시 5.30(토)~31(주일) 12:30(1박 2일)
 장소 미리내 성지 묵상의 집
 대상 40세 미만 청년
 픽업 평택역, 용인 시외버스터미널
 문의 010-5195-3217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제5차 미리내 성령묵상피정

일시 6.19(금)13:00~21(주일)15:00
 장소 미리내 묵상의 집
 강사 한연홍 신부, 한승주 신부, 이관배 신부 외
 회비 22만 원
 문의 010-4416-6445 미리내 묵상의 집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5.30~31
 3박 4일 4.23~26, 6.4~7
 4박 5일 5.1~5, 7.22~26
 8박 9일 4.9~17, 5.17~25
 40일 4.6~5.15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교육·모집

가정선교회 4월 피정

시간 12:30~16:50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성가정 영성 피정
 강사 4.1(수) 마진우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강사 4.11(토) 이상재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전인적인 치유피정
 강사 4.18(토) 박현민 신부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하느님께 나아가는 시니어 자기 통합

일시 4.11, 4.25~5.9 매주 토요일
 14:00~16:30
 장소 수원 우만동 수녀원
 문의 010-7342-9300
 아씨시프란치스코 수원 분원

희망 심는 감사쓰기 5기(온라인)

일정 4.13~5.9 (4주간)
 마감 4.1(수)
 대상 2030 청년
 인원 15명 선착순
 방법 책을 읽으며 매일 감사 3가지 쓰기
 (네이버 밴드 이용)
 비용 4만 원(책값, 택배비 포함)
 주최 수원교구 홍보국
 주관 수원 바오로딸
 문의 010-2857-5961(문자) 수원 바오로딸

예수님과 인생을 걷다 이나시오 영성강좌

일시 4.14~5.26 매주 화요일
 10:00~12:00(6주)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강의실
 강사 현재우 박사
 주제 나는 왜 세상에 왔는가
 (원리와 기초)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관상)
 문의 031-221-6481 한국CLC

아시아복음화연구원 논문 투고

내용 아시아 가톨릭 관련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 연구 참고
 주제 1) 가난, 문화, 종교 등 삼중대화
 2) 친교, 참여, 사명의
 시노달리타스 실천방안 등
 규정 A4 20매 내외
 제출 www.eaec.or.kr
 전자투고시스템(JAMS)
 지원 심사에 통과하여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소정액 지급
 문의 asiacatholicstudy@gmail.com
 아시아복음화연구원

서강대학교 '슬기로운 영성생활'

일시 4.20(월) 14:00~16:00(강의와 미사)
 주제 성경과 영성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비용 무료
 강사 예수회 송봉모 신부
 문의 02-705-4711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수원가톨릭뮤지컬극단 앗숨도미네 단원 모집

연습 안내
 일시 매주 화요일 21:00
 장소 연습실(성남시 분당구)
모집 안내
 분야 배우, 영상, 오퍼레이팅
 홍보(60세 이하 교육, 전공 무관)
 신청 이메일(musical@adsumdomine.org)
 문자(010-9935-7870)
 참고 www.casuwon.or.kr '행사·모집'

동백성루카 병원 제43차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교육

일시 5.7~6.25 매주 목요일 13:00~17:00
 장소 동백성루카 병원 지하 대강당
 비용 10만 원
 신청 https://db-luke.or.kr
 문의 070-4226-8603, 031-548-0010
 동백성루카 병원

제21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주제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활동
 자격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활동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
 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cbckcee@cbck.kr) 접수
 참고 www.cbck.or.kr
 접수 3.18(수)~5.1(금)
 시상 9.1(화). 명동대성당
 문의 02-460-7622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동행' 20기

일시 5.14~7.2 매주 목요일 14:00~17:00
 장소 동백성루카 병원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문의 070-8899-3013, 010-3025-8004
 동백성루카 병원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단원 모집

연습 안내
 일시 매주 토요일 11:00~14:00
 장소 수원교구청
 모집 안내
 대상 37세 이하 신자, 예비신자(전공 무관)
 신청 010-3214-0797
 참고 카카오플러스친구·오픈채팅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문의 010-3214-0797
 수원가톨릭청년합창단

기타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일정 4.21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2일
 5.11 나가사키 4일
 5.12 산티아고 도보순례 10일
 5.12 유럽 4국 성모발현지 12일
 5.19 이탈리아 돌로미티순례 11일
 6. 1 프랑스일주 12일
 6. 4 코카서스2국 10일
 6.22 발칸 메주고리에 11일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성 라파엘 상담소

일시 상시 10:00~17:00
 장소 성 라파엘 상담소
 (중앙 성당, 분당구미동 성당)
 내용 개인심리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방법 대면상담(전화, 화상 상담도 가능)
 참고 사전 예약 필수
 문의 031-446-7573 중앙 성당
 031-726-5000 분당구미동 성당

채용·봉사자

분당 직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과천 분당 관리장 / 채용 시
 호평 분당 관리장 / 채용 시

봉사자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선부동 분당 반주자 / 채용 시

아시아복음화연구원 봉사자 모집

분야 문서(출판 업무), 회원(후원 안내)
 홍보(인터넷, SNS 등), 언어(아시아 지역)
 학술(선교학 등 석/박사 학위소유자)
 문의 031-268-2210, 010-2925-1821
 아시아복음화연구원

성루카 요양원 직원 채용

분야 사무국장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증명서
 참고 www.casuwon.or.kr '채용·공모'
 문의 031-236-7711 성루카 요양원

성 빈센트 병원 자원봉사자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 빈센트 병원
 대상 65세 미만(남,여)
 봉사 원하시는 분
 문의 031-249-7018, 7019
 성 빈센트 병원 자원봉사팀



성소모임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일시 전화상담 후 결정
 장소 미리내 수도회 관항리 본원
 대상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
 내용 수도자의 삶 안에서 성모성심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께 영광을 봉헌하고자 하는 성소자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010-5195-3217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2026 상반기 생명지원사업 및 단기생활비지원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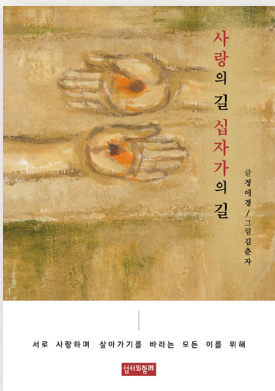
2026 상반기 생명지원 사업	대상	수원교구 내 출산, 양육,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개인, 가정 또는 기관(미혼모시설) ① 양육 지원 : 다자녀(세 자녀 이상), 조손, 한부모, 미혼부모, 입양, 가장의 실직 다문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막내 자녀 만 18세 이하) ② 출산 지원 : 셋째 자녀를 임신한 임신부, 세 자녀 이상의 임신부, 미혼모 임신부 ③ 치료비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자세히보기
	마감	4.27(월)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2026 상반기 단기생활비 지원사업	대상	수원교구 분당 내 공공요금 체납이나 생활고로 긴급하게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	 자세히보기
	마감	4.27(월)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문의	031-268-3907 교구 사회복음화국	

* 자세한 사항은 QR코드 또는 <https://social.casuwon.or.kr> 참조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저자 | 정애경
금액 | 6천 원
문의 | 02-822-0125 성서와함께



이 책을 통해 은총의 사순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마음에 되새기며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모든 이가 지금 여기 나의 삶 속에, 고통에 짓눌려 탄식하는 형제자매 안에 생생히 살아 계시는 주님 사랑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를 위한 십자가의 길

저자 | 엔즐러
금액 | 6천 원
문의 | 02-945-2972 성바로



이 책은 십자가의 길을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글을 통해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특히 본문이 그리스도의 음성과 사람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어, 십자가의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로 딸

황혼 속으로... 아름답게 나이들기

| 일정 | 4.10~5.8 매주 금요일
14:00~16:00(5주간)

| 마감 | 3.31(화)

| 대상 | 60대~70대(15명 선착순)

| 방법 | 독서 나눔-주제 강의-작업-과제

| 비용 | 1인 12만 원(도서 4권 포함)

| 장소 | 수원교구청 지하 회의실2

| 주최 | 수원교구 홍보국

| 주관 | 수원 바로로딸

| 문의 | 010-2047-1610 수원 바로로딸